

韓国留学で得たもの

——カトリック大学校での留学を振り返って——

2003年3月～2004年2月派遣交換留学生
信州大学人文学部 4年 向出 真理子

2001年秋、信州大学と韓国カトリック大学校との間に締結された国際学術交流協定に伴って1年間の交換留学制度が始まり、その第1期留学生として、昨2003年2月末にカトリック大学校に派遣された。カトリック大学校は創立約150年を迎える歴史ある大学で、教員数・在学生数はともに信州大学とほぼ同じ規模である。カトリック大学校には言語文化学部日語日本文化専攻があり、韓国人教官と日本人教官によるさまざまな授業が開講されている。

私がカトリック大での留学を志願した理由と目的は次のふたつであった。ひとつは韓国語の習得である。そしてもうひとつは自分の専攻である日本語教育学を日本語教育が行われている海外の実際場で学びた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留学前の韓国語能力は、初級レベルであった。韓国語、という外国語を学ぶという点では、日本語学習者と同じ立場に立つことになる。そのことで、わかることや役に立てる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韓国語習得と日本語教育学を、そしてそのふたつをうまく関連させて学べる場が他にもない、カトリック大への留学だった。

まず韓国語の習得について振り返る。韓国に渡り、最初に苦労したのは聞き取りだった。知っている単語でさえ聞き返してやっとわかるといった程度で、一言を理解するにも時間がかかった。そこで最初は韓国人と話すのを避けたい、という気持ちにもなった。しかし殻に閉じこもってはいけ意味がないと気持ちをあらため、恐がらず、恥ずかしがらず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ようにした。このような気持ちの切り替えは、その後も幾度となく行ったが、必要かつ大切なことだった。私にとって恵まれていたことは、韓国人の中にも日本語が話せる友人がいたことである。わからないことばを適宜日本語で教えてもらいながらの会話や、お互いに母語を教えあうことも勉強になり、励みにもなった。またカトリック大の寮では韓国人学生3人との相部屋で、いつでも韓国語を聞き、話せる環境にあった。そうして耳が慣れてきたと自覚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は夏休み前の頃だった。夏休みから帰国までの約半年ソウルの語学堂にも通ったのだが、これも私の

韓国語習得を助けた。カトリック大では日本人留学生4人で、文型導入中心の授業を受けたが、語学堂のクラスでは、さまざまな国からの留学生がいた。彼らが積極的に発言する姿勢と、ロールプレイなど会話の割合が多い授業に後押しされて話すことに自信をもてるようになった。クラスのレベルが上がるにつれ論説文や小説を読んだり、レポートも書けるようになった。後期にはすべて韓国語での授業を受講し、日常会話で苦勞することも少なくなっていた。1年という期間でこのような成長ができたのは、カトリック大と語学堂での体系化された授業に加え、寮などでふだんから韓国語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があったからであろう。また、精神的な変化も、韓国語学習への取り組みに少なからず影響を与えたといえる。

日本語教育学を実際場で、学ぶために行ったことは、日語日本文化専攻の授業の受講及び見学、「インターンシップ海外日本語教育実習」の受講である。授業だけでなく日語日文化専攻の行事に参加したときや、ふだん学生と話をするときにはスピーチコントロールを意識し、訓練する場になった。1・2年生には平明な日本語で、時には韓国語も交えながら話し、3・4年生とは自然なスピードと話し方を心がけた。韓国人教官による1年生の初級の授業見学では、常に教科書を日韓両言語で説明し、韓国語発音の影響で起こりうる誤用例をあげながら日本語の発音を的確に指導されるなど、韓国人日本語教員の特色ある教授法と授業形態を知ることができた。「インターンシップ海外日本語教育実習」ではカトリック大の客員教授である斎藤有紀恵先生のご指導のもと、授業見学と2年生の作文と会話の授業で教壇実習をさせていただいた。教壇実習の際には特に、自分がカトリック大と語学堂で見てきたいろいろな先生の教授法や有効だった学習活動などを参考にし、学習者でもある立場をいかせるように工夫した。教壇実習は反省の残るものとなったが、この反省と経験を今後につなげたい。

最後に、1年間を無事に過ごせたことに感謝している。公私ともに環境が変わる留学中には、悩んだり辛さを感じる時もある。自分に向き合い、留学生活を楽しむために重要なのは、からだと心の健康を保つことである。留学生活が充実したものとなったのは、たくさんの人との出会いと助けがあったからこそであった。お世話になったカトリック大の諸先生方と友人たち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한국유학에서 얻은 것

—카톨릭학교에서의 유학을 돌아보며—

2003년 3월~ 2004년 2월과견교환유학생
신주대학교 인문학부 4년 무카이테 마리코

2003년 가을, 신주대학교와 한국 카톨릭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국제학술교류협정에 수반해 1년간의 교환 유학 제도가 시작된 후, 제 1기 유학생으로서 2003년 2월 말에 카톨릭대학교에 파견되었다. 카톨릭대학교는 창립 약 150년을 맞은 역사 있는 대학이고, 교원수·재학생수는 신주대학교와 거의 같은 규모이다. 카톨릭대학교에는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이 있고, 한국인 교수님과 일본인 교수님으로 다양한 수업이 개강되고 있었다.

내가 카톨릭대에서의 유학을 지원한 이유와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한국어습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전공인 일본어교육학을 일본어교육을 하고 있는 해외에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학하기 전의 한국어 능력은, 초급레벨이었다. 한국어라는 이 외국어를 배우는 점에서는, 일본어학습자와 같은 입장으로 서게 된다. 그 때문에, 아는 것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한국어습득과 일본어교육학,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잘 관련 시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다름 아닌 카톨릭대의 유학이었다.

우선 한국어습득에 대해서 돌아해보면 처음 고생한 것은 듣기이었다. 아는 단어조차 다시 듣고 알게 될 정도로, 한마디를 이해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렸다. 그 때문에 처음은 한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기분이 었다 그러나 그벽을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바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기분 전환은, 그 이후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이었다. 나에게 행복했던 건, 한국인 중에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모르는 말을 일본어로 몇마디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또 그러한 것은 서로간에 모어를 가르치는 것도 공부가 되어, 서로 격려할 수 있었다. 또 카톨릭대 기숙사에서는 한국인 학생 3명과 같은 방을 쓰고 있어, 언제라도 한국어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어느정도 귀가 익숙해졌다고 자각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여름방학전 무렵이었다. 여름방학부터 귀국하기 전까지 약 반년간 서울 어학당에도 다녔었다. 이것도 자신 한국어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카톨릭대에서는 일본인 유학생 4명으로, 문형도입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었지만, 어학당에서는, 세계각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발언고쳐하는 자세와 볼 플레이 등 회화 연습이 많았던 덕분에 이야기하기도 자신을 갖게 되었다. 클래스 레벨이 오르는 것에 따라 논설문, 소설을 읽거나 리포트도 쓸 수 있게 되었다. 2 학기에는 모두 한국어 수업을 수강해, 일상 생활에서 고생하는 것도 적어졌다. 1 년이라는 짧은기간에 이러한 성장을 할 수 있던 것은, 카톨릭대와 어학당에서의 체계화된 수업을 받고, 또 기숙사 등에서 항상 한국어를 접할 수가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정신적인 변화도, 한국어학습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학을실제의 장소에서, 체험하게 된것은, 일어일본문화전공수업을 수강 및 견학, 「인터넵해의 일본어교육실습」수강이었다. 수업 뿐만이 아니라 일어일본문화전공 행사에 참가했을 때나, 평소 학생과 이야기를 할 때는 스피드 콘트롤을 의식하면서, 훈련하는 때가 되었다. 12 학년생에게는 평이한 일본어로, 경우에 따라서 한국어도 필요로 했었고 34 학년생과는 자연스러운 스피드와 말투를 유의했다. 한국교수님이 하시는 1 학년에올 위한 초급 수업에서는, 항상 교과서를 일한양언어로 설명해, 한국어 발음 영향으로 일어나는 응용예를 설명하면서 일본어의 발음을 적확하게 지도을 하셨다. 이러한 한국인 일본어교사의 특색 있는 교육법과 수업 형태를 알 수 있었다. 「인터넵 해의 일본어교육실습」에서는 카톨릭대 객원 교수인 사이토 유키에 교수님한테서 지도를 받고, 수업 견학과 2 학년 작문과 회화 수업에서 실습을 했다. 실습을 할 때는 특히, 카톨릭대와 어학당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교수법이나 유효했던 학습활동 등을 참고로 하여, 학습자인 자신 입장을 했다. 실습과정에반성할 점도 많이 느꼈지만, 이러한 반성과 경험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1 년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던 것에 감사하고 싶다. 공사 모두 환경이 바뀌는 유학과정에, 피로워하거나 곤민할 때도 있었다.돌이켜보면, 유학생활을 즐기기 위해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학생활을 충실히 보낼수 있었던것은것은,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도움을 주신 카톨릭대학교 선생님들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